



人造과일 製造方法 宇新模造化社 洪性模사장



〈洪性模 사장〉

강인한 의지의 사나이로 정평이 난 홍사장은 고향인 충남 예산에서 국민 학교를 졸업한 후 상경하여 온갖 고생을 다했다.

낮에는 화학기계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었고 밤에는 야간학교에 나갔다.

그러던중 1978年 發明을 시작, 15개월을 發明에 몰두한 결과 1982年 뉴욕에서 열린 國際發明展에서 「人造과일 製造方法」으로 銅賞을 受賞함에 이어 1983年 5月 19日 發明의 날에는 商工部長官賞을 受賞했다. 그리고 오늘의 人造과일 製造業體인 宇新模造化社의 사장으로 부상했다.

모범 發明企業인으로 정평나

發明界에 自手成家한 모범 發明企業인으로 손꼽히는 홍사장.

그가 人造과일 發明과 인연을 맺은 것은 실로 우연이었다. 우연히 찾아간 조화가계에 진열된 人造과일을 보고서 부터였다. 당시 홍사장이 본 人造과일은 표면도색만으로 처리되어 손으로 문지르면 색이 벗겨졌고, 어떤것은 그나마 오래된 탓인지 퇴색까지 되어 있었다.

홍사장은 여기에서 색상이 벗겨지지 않고 퇴색되지 않은 새로운 「人造과일 製造方法」發明을 결심했다.

그러나 의욕과 자신만을 가지고 시작한 研究의 앞을 가로막는 어려움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리 약품을 혼합해봐도 기대했던 人造과일의 색상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때는 합성수지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대기업에 기술 개발의뢰까지 하기도 했으나 그들도 아직 그같은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

다며 거액의 기술개발비를 요구해왔다.

독자적 研究로 成功

이때문에 기술개발 의뢰를 포기하고 독자적인 研究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각종 페인트를 비롯 무려 15종류, 4백여병의 화학약품을 사용한 15개월의 끈진긴 研究끝에 마침내 1979年 이 새로운 「人造과일 製造方法」을 개발, 特許 第10706호를 손에 쥐었다.

여기에 자신을 얻은 홍사장은 그 후 지금의 宇新模造化社를 설립하고, 계속 發明에 몰두한 결과 이제 80件的 特許를 손에 쥔 중견 發明企業人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굳혔다.

또 최근에는 향내나는 人造과일에 이어 합합선이 없는 人造과일의 開發에 까지 成功했는데 요즘은 사우디아라비아에 輸出할 人造과일 生産에 눈코뜰새가 없다며 홍사장을 希望에 부풀어 있다.

〈※〉